

## 01. [과편협 소식]

‘아시아 과학학술지 편집인 포럼(Asian Science Editors Forum)’ 개최



▲ (맨 아래 왼쪽부터) 조혜민, 실룬 치우(Shilun Qiu), 하종규, 호안 마시(Joan Marsh), 진정일, 김혜원, 미츠오 사와모토(Mitsuo Sawamoto), 꼬망 위르자완(Komang G. Wiryawan)  
 (맨 위 오른쪽부터) 서태설, 황은성, 허선, 김형순, 김기홍, 김명순, 유효선, 이현정, 윤철희, 김은정.

지난 10월 1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는 아시아 4개국(한국, 일본, 중국, 인도네시아) 편집인, 유럽 과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European Association of Science Editors, EASE) 회장, 과편협 임원 및 위원 등 17명이 참석한 가운데 ‘아시아 과학학술지 편집인 포럼(Asian Science Editors Forum)’이 개최되었다. 진정일 과편협 회장의 환영사로 시작한 이번 포럼은 ‘아시아 과학학술지 편집인 단체’의 결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총 3개의 세션으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 첫 번째 세션은 ‘아시아 과학 학술지 편집인 단체’(가칭)와 유사한 국제단체의 사례 발표, ▲ 두 번째 세션은 포럼에 참석한 아시아 국가의 과학학술지의 현황 발표, ▲ 세 번째 세션은 ‘아시아 과학학술지 편집인 단체’ 결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듣는 시간으로 구성되었다. 마지막 세션에서 논의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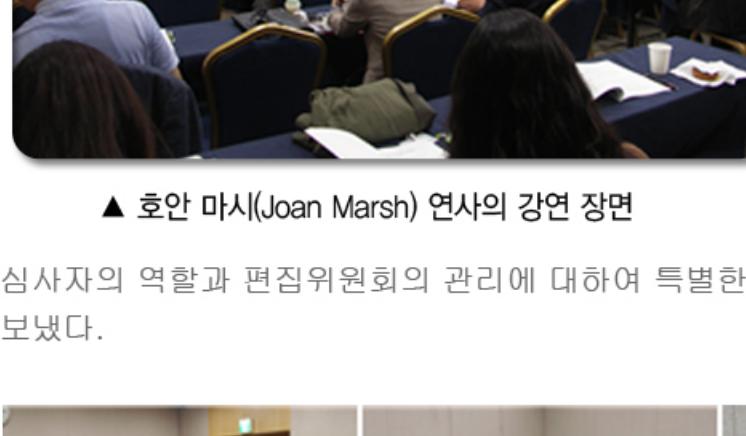
- Collaboration among science editors and editors organizations would facilitate the development of science through journal publication in Asia.
- National organization like KCSE (Korean Council of Science Editors) can be a good approach to improving the quality of Asian science journals with better international exposure.

- Therefore, it would be worthy to seek possibility of establishing a national organization similar to KCSE in Asian countries.

- International organization (Asian Council of Science Editors: ACSE/Asian Science Editors Association: ASE) would contribute to the advancement of publication of science journals in Asia through collaboration among science edito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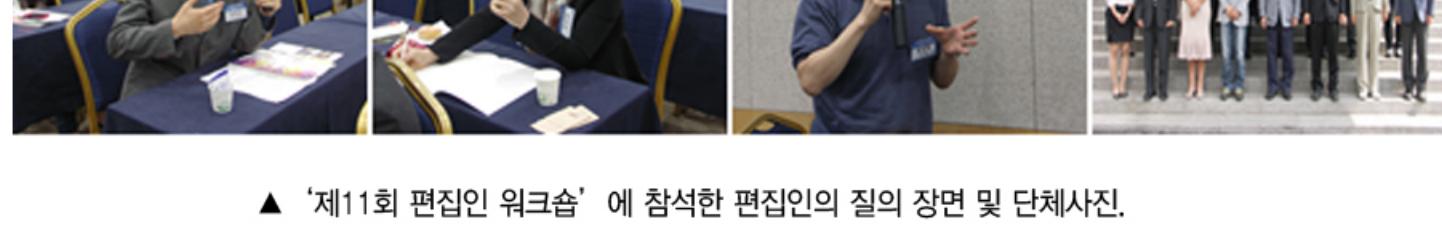
이번 포럼은 아시아의 과학학술지 편집인이 한데 모여 한목소리를 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이는 과학학술지 편집의 발전을 넘어 궁극적으로 아시아의 과학학술지 발전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 ■ ‘제11회 편집인 워크숍’ 개최



▲ 호안 마시(Joan Marsh) 연사의 강연 장면

편집인을 대상으로 한 ‘제11회 편집인 워크숍’이 지난 10월 2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개최되었다. 연사로 참여한 호안 마시(Joan Marsh)는 미국 와일리(Wiley)출판사, 의학 및 과학기술 전문출판사 엘스비어(Elsevier) 등에서 출판 및 편집관련 업무를 담당한 데 이어, 유럽과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의 회장을 역임하는 동안 쌓아온 전문지식과 경험을 이번 워크숍에서 다 풀어내었다. 46명의 편집인과 원고편집인, 학회 사무직원이 참석한 이번 워크숍은 다음과 같은 주제로 진행되었다. ▲ 전문가 심사자의 역할(Working with peer reviewer), ▲ 학술 논문의 미래(Articles of the future), ▲ 편집위원회의 관리(Managing the editorial office), ▲ 표절과 윤리(Plagiarism and ethics). 이 중 참석자들은 전문가 심사자의 역할과 편집위원회의 관리에 대하여 특별한 관심을 보였으며, 강연내용에도 긍정적인 평가를 보냈다.



▲ ‘제11회 편집인 워크숍’에 참석한 편집인의 질의 장면 및 단체사진.

## ■ ‘제12회 편집인 워크숍’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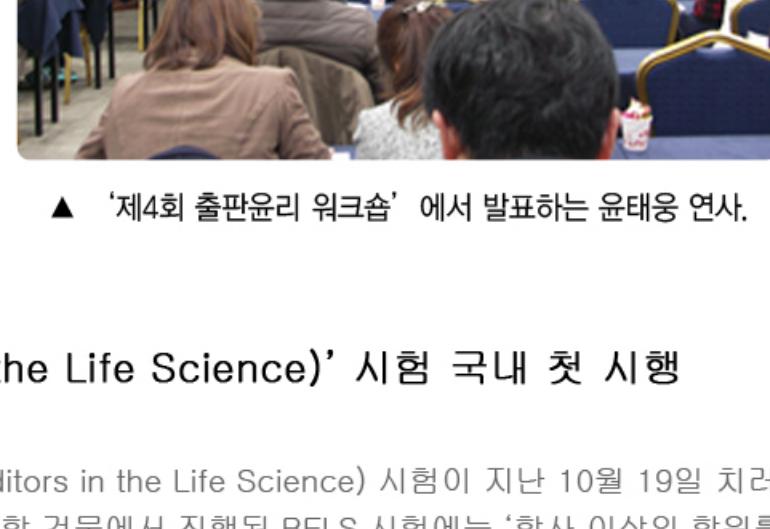
▲ (위) ‘제12회 편집인 워크숍’에 참석한 편집인의 질의장면,  
     (아래) 2013년 12월 5일 진행된 ‘제12회 편집인 워크숍’의 단체사진.

‘제12회 편집인 워크숍’이 지난 12월 5일과 6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개최되었다. 36명의 초보 편집인(3년 미만 경력의 편집위원장 및 편집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워크숍은 ▲ 학술지 출판과 관련 분야 이해, ▲ 출판 실무, ▲ 출판윤리, ▲ Local to international journals라는 4개의 주제로 진행되었다. 참석한 편집인은 학술지 출판과 저작권, 국제색인 데이터베이스 등재 전략 및 SCI(E)에 등재한 편집인의 사례 강연에 많은 관심을 보였고 강연 후 진행된 질의응답 시간이 부족할 만큼 질문 공세가 이어졌다. 일부 참석자들은 이번 워크숍에 대해 “학술지 발전 전략을 세우는데 체계적인 교육 과정이었다는 점, 강의 진행방식이 좋았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었다”는 평가를 보냈고 “앞으로도 계속 편집인을 위해 지속적인 교육의 기회를 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었다.

과편협은 매년 12월에 초보 편집인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해오고 있으며, 2014년에도 초보 편집인을 위한 워크숍을 진행할 계획이다.

## ■ ‘제14회 출판윤리 워크숍’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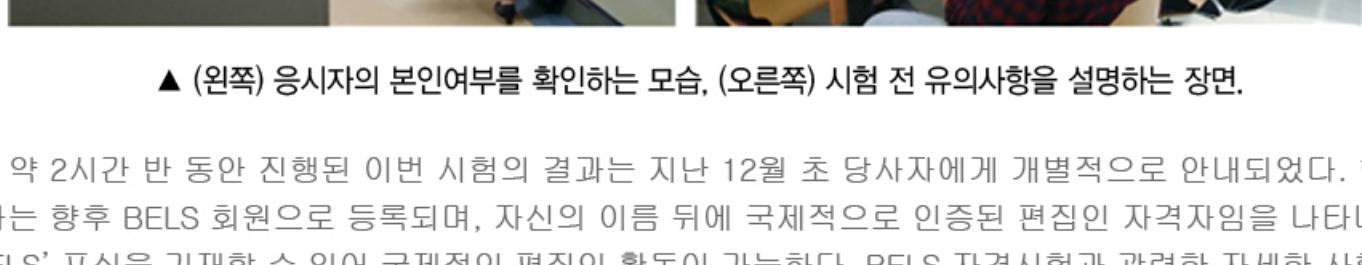
‘제4회 출판윤리 워크숍’이 지난 12월 13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개최되었다. 학문분야와 참석대상의 제한 없이 진행된 이번 출판윤리 워크숍에서는 편집인 및 학회직원 등 35명이 참석한 가운데 ▲ 표절과 이중게재, ▲ 논문 유사도 검사도구 사용 방법, ▲ 논문유사도 검사도구를 이용한 표절판정 사례에 대한 주제들로 이루어졌으며, 과편협 출판윤리위원회의 황은성 위원장과 윤태웅 위원,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의편협)의 교육연수위원회 김정호 간사가 차례로 발표하였다. 발표내용은 과편협 홈페이지([www.kcse.org](http://www.kcse.org))에서 확인 가능하며, 제5회 출판윤리 워크숍은 2014년 2월에 개최될 예정이다.



▲ ‘제4회 출판윤리 워크숍’에서 발표하는 윤태웅 연사.

## ‘BELS (Board of Editors in the Life Science)’ 시험 국내 첫 시행

국내에서 처음 시행되는 BELS (Board of Editors in the Life Science) 시험이 지난 10월 19일 치러졌다. 서울 청량리에 위치한 한림대학교 의과대학 건물에서 진행된 BELS 시험에는 ‘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하고, 2년 이상의 원고편집 경력’을 가져야 하는 조건을 만족한 국내외 편집인(원고편집인 포함) 30명이 지원하였고, 이들 모두가 시험에 응시함으로써 국내에서는 처음 시행되는 편집인 자격시험에 대한 관심을 방증해주었다.



▲ (왼쪽) 응시자의 본인여부를 확인하는 모습, (오른쪽) 시험 전 유의사항을 설명하는 장면.

약 2시간 반 동안 진행된 이번 시험의 결과는 지난 12월 초 당사자에게 개별적으로 안내되었다. 합격자는 향후 BELS 회원으로 등록되며, 자신의 이름 뒤에 국제적으로 인정된 편집인 자격자임을 나타내는 ‘ELS’ 표식을 기재할 수 있어 국제적인 편집인 활동이 가능하다. BELS 자격시험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www.bels.org](http://www.bels.org)에서 확인 가능하며, 2014년에는 9월 20일(토) 개최될 예정이다.

## ■ 과편협 2013년 전체 위원회의 개최

과편협 임원 및 위원들이 지난 12월 11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모여 2013년도 과편협 활동을 보고하고 2014년도의 사업계획 및 발전방향에 대하여 논의하고 구상하는 시간을 가졌다.



▲ (아래 왼쪽부터) 조혜민, 김형순, 하종규, 허선, 유효선, (위 오른쪽부터) 이현정, 김정아, 장재화, 김기홍, 서태설, 최재석.

## ■ 2014년도 과편협의 행사 및 계획

1월	2월	3월
1/14 원고편집인 기초교육과정(1차)	2/4 원고편집인 기초교육과정(4차)	3/4 원고편집인 기초교육과정(8차)
1/21 원고편집인 기초교육과정(2차)	2/11 원고편집인 기초교육과정(5차)	
1/28 원고편집인 기초교육과정(3차)	2/18 2014년 정기총회 원고편집인 기초교육과정(6차)	
미정 출판윤리 포럼3(1월 중)	2/25 원고편집인 기초교육과정(7차)	미정 제13회 편집인 워크숍(3월~6월 중)
4월	5월	6월
	5/2 ~ 5 CSE (Council of Science Editing)annual meeting	6/5 ~ 6 제12회 편집인 워크숍
		6/13 ~ 15 EASE (European Association of Science Editors) Twelfth General Assembly and Conference
7월	8월	9월
7/3 ~ 4 제14회 편집인 워크숍	8/5 원고편집인 중급교육과정(5차)	9/10 ~ 12 ALPSP international conference
7/8 원고편집인 중급교육과정(1차)	8/12 원고편집인 중급교육과정(6차)	9/18 ~ 19 제15회 원고편집인 워크숍
7/15 원고편집인 중급교육과정(2차)	8/19 원고편집인 중급교육과정(7차)	9/20 BELS Certification Examination
7/22 원고편집인 중급교육과정(3차)	8/26 원고편집인 중급교육과정(8차)	
7/29 원고편집인 중급교육과정(4차)		
미정 제6회 출판윤리 워크숍(7월 중)	미정 출판윤리 포럼4 (8월 중)	
10월	11월	12월
10/8 ~ 11 AMWA's 74th annual meeting	미정 2014 CrossRef annual meeting (11월 중)	12/4 ~ 5 제16회 편집인 워크숍
		미정 제7회 출판윤리 워크숍(12월 중)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회원동정 / 회원현황

### 과편협 회원현황

개인회원 35명

단체회원 197종 (138개 학회 / 신규회원 포함)

특별회원 6개

### 신규회원

이학분야 2종, 공학분야 2종, 보건분야 4종, 농·수·해양분야 1종 총 9종의 학술지가 과편협 회원으로 등록되었습니다.

분야	학술지명	편집인	학회명
이학	Analytical Science & Technology (분석과학)	이승호	한국분석과학회
	Journal of the Geological Society of Korea (지질학회지)	손영관	대한지질학회
공학	JNFCWT (방사성폐기물학회지)	이한수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
	Journal of Korea Foundry Society (한국주조공학회지)	김기영	한국주조학회
보건	Asian Oncology Nursing (대한종양간호학회지)	류은영	대한종양간호학회
	Journal of Muscle and Joint Health (근관절건강학회지)	신계영	대한근관절건강학회
농수 해산	Korean Journal of Anesthesiology (대한마취통증의학회지)	이윤석	대한마취통증의학회
	Restorative Dentistry and Endodontics (대한치과보존학회지)	조병훈	대한치과보존학회
	The Korean Journal of Pesticide Science (농약과학회지)	경기성	한국농약과학회

과편협 뉴스레터는 회원님에게 다양한 소식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뉴스레터를 통해 알리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면 아래의 양식에 기재하여 이메일(kcse@kcse.org)로 보내주세요.  
과편협 뉴스레터는 3, 6, 9, 12월 말일 발행됩니다.

※ 회원동정 양식

- 기관(학회)명:
- 내용: (5줄 이내로 작성해주세요)
- 기타: 사진, 링크 등 첨부

## ■ 단체회원 가입안내

### 단체회원 가입안내

과편협은 과학 학술지의 편집 및 발간 정보를 교환하고 편집 관련 규정을 협의함으로서 학술지의 질적 향상과 과학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구성한 협의체입니다.

본 협의회는 편집인 교육 프로그램 운영, 출판윤리 관련 사안 심의, 편집 관련 최신 정보 제공 등 국내 편집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가입을 원하시는 단체는 아래 양식을 작성하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회원에게는 아래와 같은 혜택을 드립니다.

- 편집인 교육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
- 과편협 발행 교육 책자 구입 시 정가의 50% 할인

가입을 원하시는 학술지 편집인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보내주세요. 가입 신청서 양식은 과편협 홈페이지 ([www.kcse.org](http://www.kcse.org))의 ‘Membership > How to join’ 메뉴에서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 사항은 과편협 사무국으로 연락주세요.

사무장 김은정

전 화: 02-3420-1390

E-mail: [kcse@kcse.org](mailto:kcse@kcse.org)

주 소: 135-703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7길 22 (한국과학기술회관 신관 2층)

발행인: 진정일      발행처: 한국과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

135-703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7길 22 한국과학기술회관 신관 2층

Tel : 02-3420-1390    Fax : 02-563-4931    E-mail : [kcse@kcse.org](mailto:kcse@kcse.org)    Homepage : [www.kcse.org](http://www.kcse.org)



## 02. [특집]

### 국내 학술지 육성을 위한 과총의 역할 및 향후계획

오승원

(과총 학술진흥본부장)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회장 박상대, 이하 과총)는 1972년 최초로 국문학술지발간 지원을 시작한 이래 지난 40여년간 과학기술분야 학회의 학술활동 진흥 사업을 계속해 왔다. 초창기 58개 학회에서 지금은 595개의 학회로 지원대상이 증가했고, 관련 예산도 130억원 규모로 크게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2012년 기준 SCI(E) 등재지 수가 91종에 이를 정도로 괄목히 성장 하였고, SCOPUS에는 130종이 넘게 등재 되어있다. 특히 SCI(E)급 논문수는 약 54,000편으로서 양적인 측면에서는 세계 10위권에 이르고 있다. 지원방식도 과거에는 학술지 발간과 학술대회 개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식 이었으나 현재는 전자저널 발행, 학술지 및 학회 통합지원 등 다양한 항목으로 그 지원 방식이 세분화 되었다. 앞으로는 사업의 목적을 “학술활동 진작”에서 “우리나라 학술지의 글로벌화”로 방향을 잡고 있으며, 학술 정보화와 플랫폼 구축 등 각종 인프라 확충을 통하여 학술활동 진흥을 위한 직·간접적인 맞춤형 지원으로 발전시켜 나아갈 것이다.

학술지 수준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물론 논문의 우수성에 있지만 학술지 발간과 관련한 시스템을 국제수준으로 맞추는 과정도 병행되어야 한다. 즉, 영문 발간과 전자저널로의 전환, 그리고 학술지 유통 확산을 위한 국제적인 플랫폼 제공, 국제적인 수준의 평가제도 확립과 시의 적절한 평가 항목의 반영 등 논문의 투고에서 발간과 유통까지 전 주기적인 지원이 있어야 한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학술지 시장은 선진국과는 다른 구조를 갖고 있다. 국내의 학술지 발간은 투고, 동료평가, 발간, 유통 등 모든 과정을 학회가 주도적으로 전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므로 학술지 국제화를 위한 새로운 한국형 모델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과총과 학회간 단계별 역할 분담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한정된 지원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지원 방식과 항목의 변화도 함께 고민해야 할 부분이다.

그러므로 과총은 학회에서 추천된 전문가들과 함께 ‘학회 학술활동 지원체계 개편 방안’과 ‘국내 학술지 수준 제고 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향후 정부 지원예산의 점진적인 축소에 대응해서 해외 사례 조사, 현행 지원방식 및 항목 개선, 기존 지원사업의 다각화·차별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 학회 학술활동 지원체계 개편 방안을 검토하고, 또한 국내 학술지 수준 제고를 위해 해외 우수 학술지의 사례 조사 및 분석, OA를 포함한 학술지 시장 동향분석과 과총의 학술지 플랫폼 구축에 따른 유통 활성화 전략 등을 내년 상반기 중으로 검토를 마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과총 포럼을 통해 정기적인 학회 의견을 수렴하고 국회, 정부부처, 예산당국 및 관계기관에 건의하여 학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다.

또한, 이공분야 학술지가 최소한의 국제적인 양식과 형식을 갖추도록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학술지 평가는 SCI, SCOPUS, PMC 등재 기준 및 CSE(미국 과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 가이드 라인을 적용하여, 해외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마련되었는데, 도입 첫해 시범적용 과정을 거쳐 실질적으로 금년도 부터 국내학술지 지원금 배정에 반영 하였다. 금년까지 2차례의 평가를 통해 국제수준에 부합하는 양식과 형식 및 온라인 접근성이 대폭 개선 되어, 도입 첫해 평균 48점에서 금년도는 70점으로 무려 22점이라는 큰 폭의 상승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평가기준 및 항목을 상향 조정할 예정인데, 우선 대부분의 학술지가 충족하고 있고 국제 학술지로서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항목은 필수요건으로 전환하고 신규 항목 신설 및 기존 항목간 배점조정을 통해 기준을 강화할 예정이다. 얼마전 시행한 설문을 통해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학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그동안의 추진 방식과 달리 2015년 평가 항목을 사전에 발표하여 1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할 계획이다.

그리고 과총은 학술지 유통확산 및 인용도 증대 환경 조성을 위해 OA기반의 과학기술분야 학술지 유통 플랫폼인 ‘Science Central’을 연내 구축 완료하고 2014년 1월경부터 서비스를 할 계획이다. 대표적으로 최근 의학 분야 학술지의 인용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이 PMC와 같은 플랫폼이 큰 역할을 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인 것과 같이 과학기술 분야도 학술지 유통 플랫폼이 구축되고 본격 서비스가 시작되어 국내외 어디서든 국내학술지(논문)를 쉽게 검색, 열람, 인용 할 수 있게 되면 국내 학술지 인용도 증대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나아가 해외 저널들도 적극 유치하여 명실상부한 학술지 글로벌 유통 플랫폼으로 발전시켜 나아갈 계획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일련의 계획들은 학회의 적극적인 동참과 지지로 실현이 가능하다. 또한, 그동안 과총이 정부로부터 학회학술활동지원 예산을 확보하여 과학기술학회에 지원금을 배분하는 연구비 지원기관의 역할을 해왔다면, 이제는 1966년 과총 설립 당시의 초심으로 돌아가 학회들과 함께 호흡하며, 학술지 육성이라는 대명제를 풀어나가기 위하여 학회와 과총이 함께 공동 노력하고, 과총이 진정한 학회의 대변자로서 거듭나야 한다. 이와 함께 과총을 포함해서 연구재단, KISTI와 같은 지원 기관은 각 기관의 설립목적에 따른 고유 업무를 명확히 구분하고 각 지원단계별 명확한 역할분담을 통해 업무중복을 배제하고 단계별 더욱 전문화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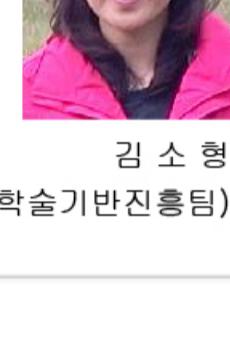


과편협 소식 | 특집 | 기고문 | 참관기 | 해외뉴스

## 03. [기고]

### 톰슨로이터 SCI 저널선정위원회와의 면담 결과 및 2013 GRC(국제연구지원기관장협의회) 오픈액세스 정책 동향 소개

지난 10월 한국연구재단은 한국에서 유치하게 된 ‘WoS 한국저널추천위원회’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 톰슨로이터 SCI 저널선정본사를 방문하였다. 11월에는 2013년 Global Research Council(GRC) 아시아태평양 지역회의가 한국(제주도)에서 개최되었고, 각국의 오픈액세스 정책 발표가 있었다. GRC 회의에서 오픈액세스 연사로 참여했던 김소형 박사가 각국 오픈액세스 정책 동향 및 SCI 저널 선정위원회와의 면담 결과를 소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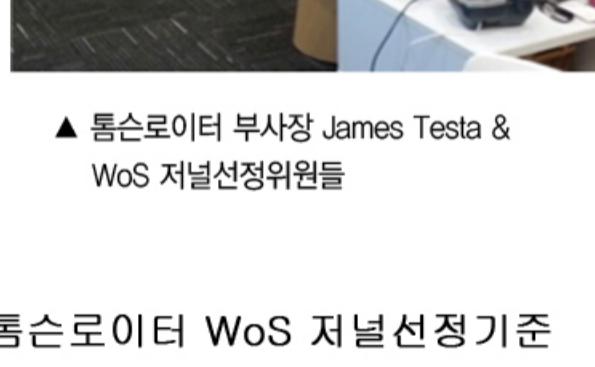
김 소 형  
(한국연구재단 학술기반진흥팀)

### ■ 「WoS 한국저널추천위원회」 한국연구재단에서 유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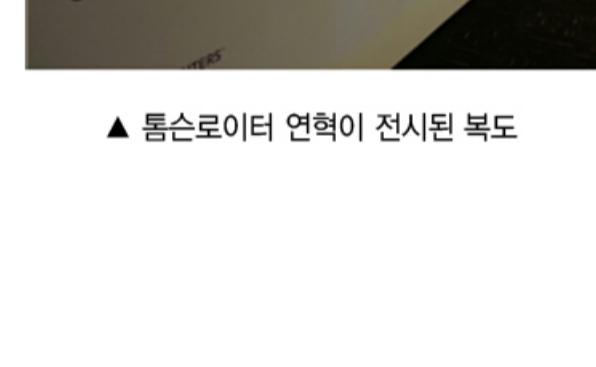
한국연구재단(이하 재단)은 SCI로 널리 알려진 “웹오브사이언스(WoS)”에 등재할 국내학술지를 우리나라 연구자들이 직접 평가하고 추천할 수 있도록 톰슨로이터와 협약(2013년 7월)을 맺었다. 작년 “Scopus 한국저널선정위원회”를 국내에서 처음 유치·운영하게 된 이후 해외 유명 DB의 등재 심사를 연이어 국내 연구자가 직접 평가할 수 있게 한 뜻 깊은 성과라고 볼 수 있다.

톰슨로이터에서 특정 국가에 등재 학술지 추천을 공식적으로 맡긴 나라는 한국이 처음이다. 재단에서 “WoS 한국저널추천위원회”를 유치하게 된 배경은 이렇다. 재단은 톰슨로이터의 공식웹페이지 “웹오브널리지(WoK)”에서 국내 논문이 SCI 논문과 동시에 검색되도록 WoK-KCI를 연계하고자 2010년부터 협의를 진행해오고 있었다. 그 과정에서 톰슨로이터는 재단의 학술지평가 제도와 KCI의 우수성을 인정하여 먼저 “WoS 한국저널추천위원회”를 재단에서 운영해 줄 것을 제의해왔다.

지난 10월 재단 김소형 박사(KCI 담당)와 윤애란 선임연구원(학술지평가 담당)은 “WoS 한국저널추천위원회”의 성공적인 운영을 논의하기 위하여 톰슨로이터 필라델피아 지사를 방문하였다. 톰슨로이터에서는 “WoS 저널선정기준” 및 저널평가를 위한 실제 “저널분석” 사례를 시연하였고, 재단은 한국의 학술지 및 학회 현황과 특장점을 소개하고, KCI에 기초한 한국학술지의 인용분석 현황에 대해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리고 양 기관은 “WoS 한국저널추천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한 단계별 전략을 심도 깊게 논의하였다.



▲ 톰슨로이터 부사장 James Testa &  
WoS 저널선정위원들



▲ 톰슨로이터 연혁이 전시된 복도

### ■ 톰슨로이터 WoS 저널선정기준

WoS Journal 선정 기준은 발간의 정기성, 국제관례에 따른 편집 여부, 저서/저자 목록정보, 논문의 심사과정의 엄격성과 같은 기본적인 학술지 출판기준, 학술지 내용의 데이터베이스 정보 확대의 도움 여부, 다른 학술지와 중복되지 않는 독창적인 분야를 다루는지의 여부와 같은 학술지의 게재 내용, 국제적 활용 가능성 여부, 논문저자의 다국적성, 인용논문의 국제적 다양성과 같은 학술지의 국제성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또한 신규 WoS 학술지의 경우에는 저자와 편집위원들의 논문이 Citation된 빈도 및 사례를, 기존 WoS 학술지의 경우에는 Journal Impact Factor와 학술지의 인용도 분석과 같은 네 가지 항목을 토대로 하고 있다. 네 가지 항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① 기본적인 학술지 편집기준(Basic Journal Publishing Standards)

##### a. 출판의 적시성(Timeliness of Publication)

- 정해진 출판일정에 따라 출판되었는지 여부
- 등재 신청 시 연속적인 3개의 정시발행 학술지를 제출해야 하며, E-저널의 경우에는 꾸준하게 정기적으로 9개월 이상 발간하여야 함.

##### b. 국제편집규약(International Editorial Conventions)

- 유용한 저널명, 실제적인 논문명, 모든 저자들의 주소정보, 참고문헌의 완전성 등

##### c. 영어 서지정보(English Bibliographic Information)

- 논문명, 저자명 및 주소, 참고문헌, 초록, 주제어의 영어표기 여부

- 전문(Full-text)은 영어가 주를 이루지만, 최소한 서지정보는 영어로 되어 있어야 함 특히 자연과학분야에서는 전문이 영어로 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 거의 필수요건임.

##### d. 동료 평가(Peer Review)

- 동료평가도 중요한 기준임. 동료평가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게재논문에 대한 전반적인 질적 수준과 참고문헌의 완전성 등에 대해 심사하였다는 지표이기 때문임.

- 저자들에 대한 개별적인 영향력 및 해당 저널에 공헌하고 있는 저자 및 편집위원회를 평가
- WoS에서 다루고 있는 논문인지 여부 고려
- 국제적 다양성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국지적 또는 국가적으로 영향력 있는 학술지를 추가함으로써 WoS가 강화되고 있음

#### ④ 인용분석(Citation Analysis)

- 학술지의 영향력을 평가하기 위한 부분
- 신규저널 : 학술지 자체보다는 저자, 편집위원 등을 평가
- 기존저널 : Impact Factor(이하 IF)를 확인

### ■ 톰슨로이터 인용분석 방법

톰슨로이터에서는 영향력지수(Impact Factor, 이하 IF) 산출 시 순수 연구논문, 리뷰 논문과 프로시딩이 인용에 포함되며, 그 외 항목은 제외된다. 자기인용(Self-Citation)의 경우 현재 전체 자기인용 비율이 40%이며, 한 학술지의 2012년도 자기인용이 60%라면 적정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 자기인용이 높은 학술지의 경우, 자기인용을 제외하고 나면 IF가 내려가게 된다. 자기인용이 너무 높은 학술지는 해당 주제 분야에서의 영향력을 정확하게 나타낼 수 없기 때문에 2013년 정보에서는 제외될 것이라고 한다.

톰슨로이터는 IF지수 외에 학술지의 질적인 척도를 위해 워싱턴대학에서 개발한 아이겐팩트(Eigenfactor)를 병행하여 사용하고 있다. IF는 총논문수와 총피인용횟수에 기초하여 산출되는 단순한 지수인 관계로, 'review' 학술지들이 IF 기준 최상위 순위에 랭크되는 반면, 아이겐팩트는 연구자라면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학술적 권위에 비례하여 순위가 랭크되고 있다. 따라서 IF는 단순한 수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해당 주제 분야 내 다른 학술지들과의 영향력을 비교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 ■ 톰슨로이터 WoS 저널선정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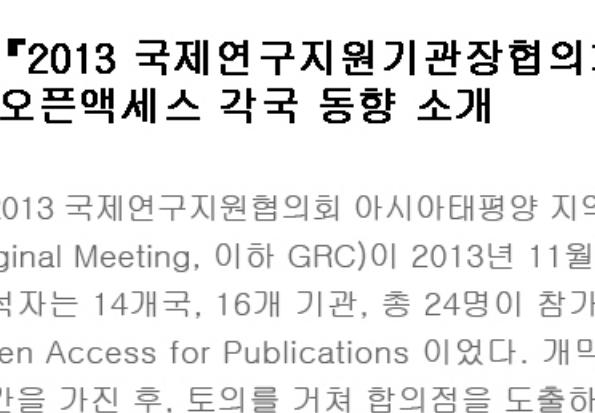
WoS 저널 선정 위원 중 외부 평가위원은 한명도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100% 톰슨로이터 내부 직원에 의해 저널 선정 작업이 수행된다. 저널 선정 작업은 11명의 톰슨로이터 편집위원들이 2주에 한 번씩 회의를 통해 약 12,000종의 저널을 평가하여 이루어진다. 연간 2,500 ~ 3,000여 종이 WoS 저널 등재를 신청하지만, 그 중 약 10%만 선정되며 선정비율은 정해지지 않았다. 편집위원장인 James Testa(부사장)를 포함한 11명의 편집위원들은 평균 20년 이상의 저널 선정 경력을 가지고 있으며, 최소 경력의 편집위원도 10년 이상의 경력을 지니고 있다.

### ■ WoS 한국저널추천위원회 운영 논의

톰슨로이터에서 특정 국가에 등재 학술지 추천을 공식적으로 맡긴 나라는 한국이 처음이다. "WoS 한국저널추천위원회" 운영 목적은 국내의 수준 높은 학술지가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함으로써 WoS 등재율을 높이고, 국제적인 노출도를 높이고자 함이다. 아울러 국내 학술지의 WoS 등재 신청에서 선정까지의 소요기간을 대폭 단축하고자 함이다. 이에 톰슨로이터에서도 "한국위원회"와 톰슨로이터의 파트너쉽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한국에서 추천된 학술지의 최종 등재율을 최대한 인정하겠다고 약속하였다.(한국에서 추천된 학술지의 최종 등재율은 80% 이상 될 것으로 추측됨.)

특히 재단에서 발표한 KCI에 기초한 한국학술지 및 학회의 현황 및 인용분석 자료에 대해 톰슨로이터 측 관심이 예상보다 훨씬 높았으며, 참고자료로 보여준 한국어로 작성된 상세분석 자료까지 큰 관심을 보였다.

James Testa는 한국저널등재 시 KCI 인용분석 데이터를 반드시 참고하겠으며, 저널 추천 시 KCI 인용데이터를 기본으로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또한, 재단의 학술지평가 역량과 KCI 데이터에 대한 정확성을 높이 평가하며, WoS 신규등재저널에 대한 평가뿐만 아니라 기존 WoS 등재저널에 대한 계속평가까지 한국위원회에서 맡을 수 있는지 요청하였다.(해당 사안은 "WoS 한국저널추천위원회" 발족 시 재논의하기로 함)



▲ KCI인용분석-분야별 논문 인용율



▲ WoS 한국저널추천위원회 운영 논의

### ■ 「2013 국제연구지원기관장협의회 아시아태평양 지역회의」 오픈액세스 각국 동향 소개

2013 국제연구지원협의회 아시아태평양 지역회의(2013 Global Research Council(GRC) Asia-Pacific Regional Meeting, 이하 GRC)이 2013년 11월 18일부터 19일까지 이를 동안 제주도에서 진행되었다. 참석자는 14개국, 16개 기관, 총 24명이 참가하였으며, 회의의 두 가지 의제는 Funding the Future, Open Access for Publications 이었다. 개막 연설 후 두 의제에 대하여 여러 참가자들이 발표하는 시간을 가진 후, 토의를 거쳐 합의점을 도출하였으며, 본 고에서는 오픈액세스(이하 OA) 관련 각국의 정책 동향만 소개하고자 한다.

먼저, 독일의 Dr. Jorg Schneider가 오픈액세스 논의 배경을 설명하였다. 그는 OA는 연구의 질과 영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중요한 도구가 됨을 강조하며 OA실행 계획서를 소개하고, OA에 대한 의식 높이기, OA의 연구공동체 지원을 강조하고, GRC에 의한 OA 지원의 영향 평가에 근거한 OA 조치 계획 원칙을 소개하였다. OA 조치 계획은 의무가 아니며 각 지원 기관은 각자의 기관에 가장 알맞은 계획을 적용하기를 권장하였다.

두 번째는 중국의 Li Lin 이 중국의 오픈액세스 동향에 대해 설명하였다. 그녀는 2005년 샤먼대학에서 시작된 중국의 OA 발전 배경을 소개하고, 현재 중국에 개별 저장소를 가진 대학은 103곳이고, 지식지도, 연구 프로필, OA 기자 배포 시스템, 권리 관리 규칙 등 다양한 플랫폼을 설치하는 중이라고 하였다. 중국에서 출판된 논문의 3분의 1이 OA로 등록 되었고, CAS(Chinese Academy of Sciences)는 OA 교육에 대해 가장 많이 다운로드 된 논문으로 수상 경력이 있다고 하였다.

세 번째는 한국의 김소형 박사가 한국연구재단의 OA 정책에 대해 소개하였다. 한국의 대표적 OA 레포지터리로 KCI 시스템을 소개하면서 한국에서는 OA 방침에 따라 재단지원을 받은 연구논문은 의무적으로 KCI에 저장되어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한국은 OA 활동을 지지하기 위한 우수한 IT 시설이 있고, 학술지평가 등 학술단체지원사업을 주관하는 재단의 특성으로 OA 활동이 매우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고, 한국 학술지의 특성으로 인하여 OA 저널 비용은 매우 낮다고 설명하였다.



▲ 2013 GRC 회의 참석자



▲ 한국의 NRF OA 정책 발표

네 번째는 일본의 Syun Tutiya 교수가 일본의 OA 정책 동향에 대해 소개하였다. 2012년 MEXT의 기관이 "국제 학문적 커뮤니케이션 용량 강화를 위한 시설 발전"이라는 저널을 발행하였으며, 2013년 3월, 일본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연구자는 1년 이내, 각자 교육기관 보관소를 통해 인터넷에 논문을 공개하는 것을 의무화하였고, 일본의 OA 플랫폼은 무료임을 언급하였다. 영어 학술지를 지원하는 J-Stage라는 플랫폼이 있고 일본어만 지원하는 CiNII 플랫폼도 있음을 소개하며, 미국, 중국에 이어 일본이 세계 세번째로 OA 저널을 지원하는 국가라고 언급하였다. 마지막으로 아시아는 도서관 지원 자금이 떨어지기 때문에, OA는 저널을 발행하는 것이 유일하고 지속 가능한 방법이라고 강조하였다.

다섯 번째는 태국의 Dr. Petchara Sungkhaworn가 태국의 OA 시스템을 소개하였다. NRCT(National Research Council of Thailand)는 태국 모든 대학교처럼 공개된 보관소를 가지고 있고, 태국은 작년 DOI 시스템을 도입하여, 연구자는 아무것도 지불 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는 사실을 설명하였다. 또한 태국은 Datacite의 가입자임을 알리며, GRC가 공동의 보관소를 설립하는 것을 추천하였다.

여섯 번째는 인도의 Dr. Ramasamy Brakaspathy 가 인도의 OA 정책을 소개하였다. 인도에서는 6분의 1의 저널이 OA가 실행되는 중이며, 저널의 양보다 질이 더 중요하게 생각이 된다고 하였다. 또한 인도의 지원 기관들은 OA 저널이 국가적 기관에 의해 운영되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일곱 번째는 스리랑카의 Dr. Seetha Wickremasinghe이 스리랑카의 OA 정책을 소개하였다. 스리랑카는 1인당 국민소득이 2023달러까지 오르면서 빈곤국가에서 제외되고 저소득 국가로 지정되었다. 이에 따라 이전에 비해 국제적인 지원이 줄어들었고, 국가차원에서 지원 자금을 찾아야 하는 시기라고 하였다. 스리랑카의 NSF는 1968년에 설립되었고, 전국 학술 보관소와 연결된 중앙 학술 보관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OA의 진전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량 통계를 관찰하고 있다고 하였다. 특히 2014년에는 전년도에 없었던 OA 관련 예산을 할당할 예정이라고 하였다.

다음은 OA와 관련한 토의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 OA란 저자를 위한 것인가? 독자를 위한 것인가?

- OA는 독자를 위한 것이며, 특히 출판물에 관한 것임.

○ OA 학술지 중 그 논문의 양질을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 것인가?

- 논문의 질에 관련해서는, GRC가 조치계획을 세우려 노력하지만 현재로써는 쉬운 방법은 없는 상황

○ OA의 대상 학술지는 영어로 될 것인가? 기타 외국어일 경우, 알아볼 수 없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공개되는 의미가 없기 때문. 카자흐스탄에서는 과학자가 논문을 읽을 수 있도록 정부가 Elsevier, SCI와 같은 출판사에게 비용을 지급함. 국제 공용어를 쓰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주장.

- 국제적인 언어 사용을 위한 보관소를 설립하기에 많은 법적 어려움이 따르고, 지역 보관소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은 방법.

- 세계 보관소가 생기지 않아도 연구자가 전 세계적으로 연구자들과 연락을 할 수 있도록 키워드, 개요, 계약 정보 등을 영어로 쓰는 것을 추천. GRC는 자발적 기관이므로 세계 보관소 설립을 위한 자금이 없으나, 남미 지역이 가지고 있는 그들만의 지역 보관소가 좋은 모델이 될 수 있음.

○ 객관적으로 아시아에서는 OA에 대한 진보가 거의 없음을 지적. 출판사보다는 다른 요인들이 많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임.

- NRF는 논문 평가 중 OA를 평가 항목으로 사용하는데, OA가 평가 항목으로 들어가면 모든 저널들이 OA로 바뀌고, 판매자들의 이익은 떨어지기 때문에 출판 관련 사업자들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고, 이들은 판매자들은 국회에서 OA 반대 로비 활동을 하고 있는 추세임.

김소형 / 한국연구재단 학술진흥본부 학술기반진흥팀 연구원

Tel: 042-869-6432, E-mail: mini@nrf.re.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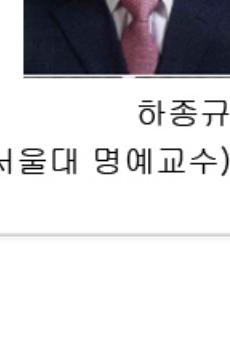


## 04. [참관기]

‘크로스레프 워크숍(CrossRef Workshop) 및 2013년 총회’

### 학술출판 환경의 빠른 변화를 예고하다!

지난 11월 미국 보스턴에서 개최된 ‘크로스레프 워크숍(CrossRef Workshop) 및 2013년 총회’에 다녀온 하종규 과편협 부회장이 이 행사에서 다룬 주요한 프로그램을 10가지로 나누어 소개한다.



하종규

(과편협 부회장, 서울대 명예교수)

## ■ 새로운 흐름을 보여주는 학술출판계의 중심

지난해 11월 12일 ~ 11월 13일 미국 보스턴에서 ‘크로스레프 워크숍(CrossRef Workshop) 및 2013년 총회’가 개최되었다. 필자는 이 행사에 조혜민 과편협 원고편집위원장과 함께 다녀왔는데, 키스티(KISTI)에서 1명, 의편협에서도 2명이 참석했다. 주최 측에서는 11월 12일에 개최된 워크숍에 104명, 그리고 11월 13일에 개최된 총회에 총 147명이 참석하였고 이는 역대 최다 참석 인원이라고 밝혔다.

첫째 날의 워크숍에서는 CrossRef 또는 관련 프로그램(CrossMark, CrossCheck, CitedBy, FundRef, CrossRef Search, ORCID)들의 기본 사업내용, 현황 및 개선에 대한 소개와 아울러 새로이 개발하고 있는 텍스트 및 데이터 마이닝 프로그램(Text & Data Mining program)인 ‘Prospect’ 사업에 대한 소개가 있었다.

둘째 날의 총회는 크게 3부로 나누어 진행하였으며, 제1부는 CrossRef 총회로서 사업보고, 재무보고, 이사선임 순으로 진행되었고, 제2부는 CrossRef의 각종 사업 프로그램의 현황, 최근의 개선내용, 신제품 개발현황에 대한 보고로서 워크숍에서 거론되었던 내용의 축약판이었다고 할 수 있다. 제3부에서 진행된 기조연설에서는 1) 연구자의 업적을 단편적으로 평가하는 현재의 영향력 지수(IF, Impact Factor)을 보완하여 개인의 실적을 다면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임팩트스토리(Impactstory)’ 시스템의 소개, 2) 시대 변화에 따른 출판유형의 변화추세 및 전망, 3) 각종 학술자료의 영구보관 시스템인 ‘CLOCKSS’와 ‘Portico’ 시스템에 대한 소개가 있었다.

## ■ 본 행사에서 다룬 주요 프로그램 10가지

워크숍과 총회에서 다룬 주요 프로그램을 간단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1. CrossRef

출판(publication) 및 학술논문 자료들의 링크 서비스(data linking service)가 주 기능이며, 2000년에 출범했다. 이곳은 현재 10개의 International DOI Foundation (IDF) registration agency 중 최대 규모로서 6,300만 건(학술논문이 약 82%임)의 DOI를 보유하고 있으며, 4,500개 이상의 출판관련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 2. Cited-By

특정 논문이 다른 학술지에 의해 인용되는 빈도를 알려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2004년 출범한 이래 현재 326개 출판관기관이 참여하여 3억 5,000만 건의 링크 실적을 올리고 있다.

### 3. CrossCheck

아이파라다임(iParadigms)사와 공동으로 진행해온 사업으로서 논문의 표절 가능성 유무를 검사(screening)하는 시스템이며, 2008년 시작하여 현재 500여 개의 출판기관이 참여하고 있고, CrossCheck 데이터베이스에는 현재 3,800만 건의 학술자료가 저장되어 있다.

### 4. CrossRef metadata service (CMS)

가입단체가 메타데이터(metadata)를 얻을 수 있도록 해주는 서비스(service)로서 2013년 말 현재 35개 협력기관이 가입해 있으며, 이 검색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6,300만 건의 문건을 대상으로 검색(search) 가능하다.

### 5. CrossMark

문헌의 수정, 변경, 철회 등 출판 후 변경사항을 통지해주는 기능으로서 2012년 4월 개시 후 현재까지 270,000건의 문헌이 등록되어 있고 이 중 2,700여 건이 출판 후 기록을 변경하였다. 이 프로그램에는 현재 24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 6. FundRef

2013년 5월에 신규 출범한 프로그램으로서 연구비 출처를 표기하는 국제표준으로 이 용될 전망이다. 2013년 말 현재 25개 출판기관이 참여하고 있으며 고유번호가 등록된 연구비출연기관은 약 4,800곳이다.

### 7. CrossRef Prospect

현재 개발완료 단계에 있으며, 텍스트 및 데이터 마이닝(text & data mining)을 해주는 기능이 탑재되어 있다. 각 유형별 출판에 따른 사용권(license)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단계가 남아 있으나, 조만간 이용 가능하리라 예상된다.

### 8. ORCID (Open Researcher and Contributor ID)

CrossRef가 지원해온 저자별 고유인식번호를 부여하는 시스템으로서 앞으로 모든 연구자의 참여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 9. Impactstory

CrossRef와의 관련은 없으나 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한 임팩트스토리(Impactstory)의

공동설립자(co-founder)인 헤더 피워와르(Heather Piwowar) 박사가 밝힌 바에 의하면 Impactstory는 연구자의 영향력을 현재와 같이 단순히 IF로만 평가하지 않고, 해당 학문 분야 및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다양한 각도에서 분석한 자료를 제공해주며 학술논문뿐 아니라 방송, 잡지, 개인 SNS 등의 내용도 평가의 대상이 된다.

## 10. CLOCKSS와 Portico

CLOCKSS(Controlled Lots of Copies Keep Stuff Safe)는 세계 주요 도서관과 출판사가 출자하여 만든 문헌 영구보관 시스템(Dark Archive)로서 일반인 접근이 허용되지 않는다. Portico도 이와 유사하여, 일반인의 접근이 허용되지 않는 문헌 보관 시스템으로서, 출판사나 도서관 등도 학술지가 더 이상 출간되지 않아 학술정보를 얻지 못한 경우 혹은 다른 특정사안이 발생할 때만 접근 가능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 ■ CrossRef의 학술사업 다각화에 담긴 의미

필자는 1박2일간의 워크숍 및 총회에 참석하는 동안 CrossRef가 새로운 변화와 도약을 마련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데이터 링킹 시스템(data linking system)으로서 출발한 CrossRef의 중심이 이전 까지는 출판회사나 학회지를 위한 주요 시스템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2013년 5월 연구비 지급기관의 편의성을 제공하는 시스템인 FundRef를 새로이 출범시키고, 2012년에 개시한 CrossMark, 2013년 말 현재 저자가 주 이용자인 프로그램인 CrossRef Prospect의 개발을 완료해가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중이다. 이로써 CrossRef의 사업대상 범위가 이제는 설립 당시의 단순한 데이터 링킹 서비스 사업을 기반으로 한 학술자료(data)의 생성, 가공, 유통, 이용, 보관 등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앞에서 설명한 CrossRef의 주요사업 10가지의 내용은 이미 국내에도 많이 알려져 있고 또 일부 학술지들은 실제 학술지편집과 출판에 적용하고 있지만, 좀 더 많은 학술지가 적용할 수 있도록 교육 및 세미나를 통해 심도 깊고 지속성 높은 추진력을 갖고 알려줄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었다. 동시에 새로이 마련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에 대한 최신 정보도 적기에 적극적으로 알려 우리나라 편집인들이 출판환경의 변화에 미리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에서, 과편협의 어깨는 더욱 무거울 수밖에 없다.

하종규 / 한국과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 부회장, 서울대 명예교수  
Tel. 02-3420-1390, E-mail: jongha@snu.ac.kr



## 05. [해외뉴스]

### ■ Learned Publishing vol. 26 no. 4 October 2013

#### Editorial

- 236 CHORUS: moving research publications in line with US federal funding requirements Scott-Lichter, Diane

#### Article

- 240 The second digital transition: to the mobile space – an analysis of Europeana David Nicholas and David Clark

- 253 The new engagement game: the role of gamification in scholarly publishing David Armstrong

- 257 Technical and ethical standards in China: long on framework but short on action Lu Jian-Ping

- 259 How to spot Ugly Black Ducklings: the next competitive frontiers in scholarly publishing Peter Froehlich

- 265 RUBRIQ: tools, services, and software to improve peer review Laura Stemmle and Keith Collier

- 269 Are online communities the future of bookselling? Jane Tappuni

- 272 What satisfactions do self-publishing authors gain from the process? Alison Baverstock and Jackie Steinitz

- 285 Medical research charities and open access Stephen Pinfield

- 303 How the approval system affects Chinese scientific journals Songqing Li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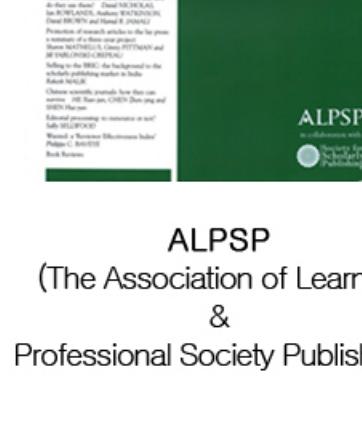
#### Book review

- 310 Copyright Questions and Answers for Information Professionals: From the Columns of Against the Grain Cindy Clark

비회원인 경우 open access 자료만 열람 가능하십니다.

[www.learned-publishing.org](http://www.learned-publishing.org)

## LEARNED PUBLISHING



ALPSP

(The Association of Learned &

Professional Society Publishers)

### ■ European Science Editing vol. 39 no. 4 November 2013

#### Editorial

- 86 Education, education, education Joan Marsh

#### Original articles

- 87 Current state of science editing and publishing in Russia Sergey V Gorin, Igor Yu Sklyarov, Elena I Kostyukova

#### Essays

- 90 Cascading peer review for open-access publishing Edward F. Barroga

- 92 Common statistical mistakes in manuscripts submitted to biomedical journals Farrokh Habibzadeh

- 95 Quantifying the work of copy editors Yateendra Joshi

- 97 How to better achieve integrity in science publishing Jaime A. Teixeira da Silva

- 99 On the current presentation of scientific papers:

5. Verbs and tenses

Denys Wheatley

#### Reports of meetings

- 100 The Asia Pacific Association of Medical Journal Editors (APAME 2013) Convention Eva Baranyiová

- 102 24th Annual Congress of the Society for Editors and Proofreaders Charlotte Baptista

- 103 Twelfth Annual General Meeting Joan Marsh

#### Book review

- 104 Competing interests in biomedical publications: main guidelines and selected articles Hervée Maisonneuve

#### Regular features

- 105 EASE-Forum Digest, June to September 2013 Elise LangdonNeuner, compiler

- 107 My life as an Editor – Denys Wheatley

- 108 News Notes John Hilton

- 110 The Editor's Bookshelf

## European Science Editing



EASE

(The European Association of Science Editors)

112 Correspondence

비회원인 경우 최신 2호 이전 자료부터 열람 가능하십니다.

[www.ease.org.uk](http://www.ease.org.uk)

발행인: 진정일      발행처: 한국과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

135-703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7길 22 한국과학기술회관 신관 2층

Tel : 02-3420-1390    Fax : 02-563-4931    E-mail : [kcse@kcse.org](mailto:kcse@kcse.org)    Homepage : [www.kcse.org](http://www.kcse.org)